

존 메이어의 음악 특징에 관한 연구 -노래 'Vultures'를 중심으로-

조유장,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yujang99@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by John Mayer -Focused on the Song 'Vultures'-

Yu Jang J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존 메이어의 Continuum 수록곡 Vultures를 중심으로 반복적 리프와 미니멀한 편성이 만들어내는 평키하고 블루지한 그루브를 분석하였다. 손가락 연주, 더블스탑, 벤딩과 비브라토 등 연주 기법과 Stratocaster의 픽업 2번 포지션 선택 등이 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Vultures가 Continuum 앨범이 지닌 성숙과 진정성의 주제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곡임을 밝혀냈다.

1. 서 론

존 메이어(John Mayer)는 블루스, 록, 팝을 넘나드는 음악적 언어로 2000년대 이후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의 세 번째 정규 앨범 Continuum (2006)은 음악적 성숙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받으며, 전작의 팝 지향적 경향에서 벗어나 블루스와 소울의 전통을 보다 깊이 탐구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앨범은 단순한 싱어송라이터의 정체성을 넘어, 연주자이자 밴드 리더로서 존 메이어가 확립한 음악적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중 Vultures는 미니멀한 편곡과 반복적 리프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리듬감을 드러내며, 앨범의 중심적인 곡으로 평가된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된 연주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밴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그루브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존 메이어는 이 곡에서 골드 리프 스트랫을 사용했음을 직접 언급하며, 해당 기타의 두 번째 픽업 포지션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사운드를 강조하였다. 이는 곡의 리프가 단순한 연주적 요소를 넘어, 특정한 장비와 사운드 선택에 의해 곡 전체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Vultures는 음악적으로는 미니멀리즘적 편곡과 독창적인 리듬감을, 연주적으로는 특정 기타와 사운드 톤에 의존한 개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 곡의 연주적 특징과 사운

드 선택이 어떻게 존 메이어의 음악적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Continuum 앨범 속에서 Vultures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존 메이어의 “Vulture“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악보에서는 편의상 곡의 특징이 반복되는 같은 구성은 생략하고 접근하였다.

2.1 “Vultures“의 분석

Words and Music by
John Mayer, Pino Palladino
and Steven Jordan

Intro
Moderately ♩ = 100

Ch. 1 (clean) Riff A

mf w/ fin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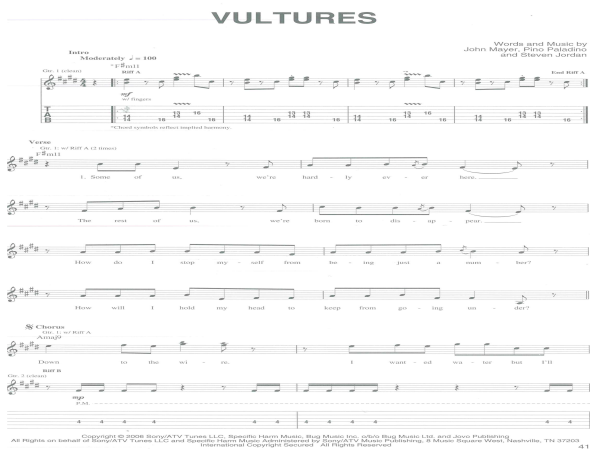
End Riff A

*Chord symbols reflect implied harmony.

[그림 1] Vultures의 Intro

Intro는 존 메이어의 평키한 기타 리프와 드럼, 베이스 리듬

섹션이 함께 곡을 시작한다. 이때 기타는 F#m pentatonic scale을 중심으로 하되, 코드 F#m에 9th, 11th 텐션음을 활용하여 색채를 더한다. 존 메이어는 피크 대신 손가락을 사용하여 엄지로 5번 줄을 뮤트 처리하고, 검지와 중지로 3·4번 줄을 더블 스톱으로 연주함으로써 리듬 섹션과 긴밀히 맞물리는 그루브를 형성한다.



[그림 2] Vultures의 Verse

Verse는 인트로의 기타 리프와 리듬 섹션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출한 3인 편성이지만 기타는 반복적이면서도 멜로디컬한 리프를 지속하고, 드럼은 단순한 패턴 속에서 묵직한 스네어 톤으로 리듬의 중심을 잡는다. 베이스는 기타 리프를 보강하면서도 독립적인 라인을 전개하여 기타와 드럼 사이의 음향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채운다.



[그림 3] Vultures의 Chorus

Chorus에서는 기존 리듬 편성이 유지된 가운데, 세컨드 기

타의 싱글 노트 라인이 추가된다. 단순한 패턴의 이 라인은 곡의 미니멀리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송품 전환의 효과를 부여한다. 보컬은 가성을 활용해 음색적 대비를 주며, 기타 리프 또한 리듬적 변화를 가미하여 곡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고조시킨다. 이후 4마디의 인터루드에서는 F#m pentatonic scale을 기반으로 한 짧은 솔로 애드립이 등장하며, 이는 2절로 이어진다.

Guitar Solo는 앞선 짧은 애드립과 유사하게 절제된 어프로치를 취한다. 존 메이어는 노트 수를 줄이고 반음 및 온음 벤딩과 비브라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블루스적 표현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간결한 리듬 섹션과 조화를 이루며, 특유의 블루지한 사운드를 강조한다. 이후 8마디에서는 두 대의 건반이 트레이드 형식으로 솔로를 주고받으며, 3절로 곡이 진행된다.

3절 Verse와 Chorus는 이전과 동일한 리프와 리듬 구성을 유지하지만, 보컬 멜로디와 리듬의 변화를 통해 곡의 에너지가 점차 고조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반복적 구조 속에서도 새로운 악기와 보컬 변화를 더함으로써 절제된 긴장감을 지속시킨다.



[그림 4] Vultures의 Outro

Outro에서는 3절에서 고조된 분위기가 이어지며, 기타의 볼륨 스웰(volume swell) 주법이 더해져 신비롭고 몽환적인 음향 질감을 형성한다. 리듬 섹션은 여전히 단순하고 타이트한 연주를 유지하며, 곡은 크게 폭발하지 않고 페이드 아웃으로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Vultures는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평키하면서도 그루브한 리프와 절제된 편곡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존 메이어 특유의 음악적 성숙을 드러낸다.

3. 결론

본 연구는 존 메이어의 Continuum 수록곡 Vultures를 대상으로 음악적·연주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곡은 F#m pentatonic 기반의 간결한 리프와 드럼·베이스의 견고한 리듬 섹션을 중심으로, 화려한 기교보다는 그루브와 절제된 표현에 집중한다.

연주적으로는 손가락 연주, 더블스탑, 벤딩과 비브라토가 두드러지며, 특정 기타(Gold-leaf Stratocaster)의 독특한 톤 선택은 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세컨드 기타와 건반 솔로의 추가, 마지막의 볼륨 스웰과 페이드아웃은 곡의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텍스처적 변화를 제공하며,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Vultures는 존 메이어가 블루스·소울 전통을 현대적 팝 어법 속에서 재해석한 대표적 사례이며, Continuum 앨범이 지닌 성숙과 진정성의 주제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곡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삼호출판사. 파플러 음악용어 대사전. 세광 음악 출판사. 1991
- [2] John Mayer 3집 [Continuum]
- [3] John Mayer. Continuum. USA: Hal Leonard, 2007.